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총서홀에 정중히 모신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은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었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총서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르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사업을 중시하시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시실들과 혁명사적물보존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전시실들에 정중히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 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혁명의 만년 재보, 국보중의 국보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일찌기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청년



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해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문제를 나

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엄두조차 못내는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었으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즐기차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고 청년중시사상을 변함없는 전략적인 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청년운동사적관에는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자면 강사들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적관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령도사와 청년운동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 당을 따라 총정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청년들의 투쟁력사를 잘 보여줄수 있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이 준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청년운동사적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었다.

본사기자

자주통일의 한길을 따라

1월 25일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가 결성된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세기 1990년대초 격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용지를 펼치시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사실적인 전민족적통일전선체를 결성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정론과 민족대통일전선사상을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은 19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제 1차 범민족대회를 성대히 가지고 통일에국세력의 연합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내오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1월 25일 범민련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을 친히 접견하시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1993년 4월 6일에는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범민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의지와 탁월한 령도밑에 범민련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 온 겨레의 공동의 통일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적인 전민족적통일운동연합체로서 장성장화되게 되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단체와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범민련은 창설후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1990년대에 10차례의 범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파시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갔다.

또한 새 세기에 들어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밝혀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

내외의 각계층 광범한 겨레를 조국통일성업실현과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에 불리이러기 위해 남과 해외본부들과 련대하여 다양한 통일활동을 활발히 벌렸으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하였다.

범민련 북측본부가 걸어온 지난 25년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의 고귀한 진리와 그 정당성이 현실로 힘있게 확증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것을 세계앞에 파시한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다.

오늘 우리 민족앞에는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삼천리에 기어올라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할 최대의 과업이 나서고있다.

범민련을 비롯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은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민족의 통일성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다.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봉원의

조국소식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대상건축공사 90%계선 돌파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 총공격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첫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소식에 무한히 고무되어 련일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자연박물관, 본관을 비롯한 덩지가 큰 건물들의 내부가 몰라보게 일신되고 수족관과 철갑상어못의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는 등 2단계개건대상들의 건축공사실적이 90%계선을 돌파하였다.

2단계개건공사량의 40%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자연박물관건설에서

집단지역신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지하층공사에서도 일별, 공정별전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이 선물물물2관과 체육문화회관건설장을 비롯한 여러대공사장들에서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본사기자



선군총대의 고향이 전하는 이야기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에 잠겨있는 지금 평양에 있는 평천혁명사적지로는 참관자들의 행렬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왜? 수소탄보유의 역사적사면의 뿌리를 파보면 이곳 사적지가 있기때문이다.

공화국에서 평천혁명사적지는 선군총대의 고향, 군수공업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다.

기자는 얼마전 수소탄까지 만드는 자립의 국방공업이 어떻게 자기의 첫 발을 내짚었다를 전하고자 이곳을 찾았다.

강사가 들려준데 의하면 나라가 갓 해방되어 새 조국건설을 다그치던 그무렵 모든것이 부족하고 해야 할 사업, 건설하여야 할 대상들이 너무도 많았던 그때 무엇보다 먼저 자체의 군수공업을 창설할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제 34(1945)년 10월초 그곳을 찾으시었다.

해방전 이곳(당시 평천리)에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포탄생산을 하면서 무기부속품생산과 수리를 하던 무기기계조소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여 쫓겨가면서 기술문건과 경영문건들을 모조리 소각하고 생산건물, 생산설비까지 파괴하여 폐허나 다름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제조소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여기에 우리 나라의 첫 병기공장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해방전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내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병기부품기술자들을 자체로 양성하고 공장에서 리용할 기계설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힘이 약해 일제의 식민지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피의 교훈, 자체의 병기공업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나라의 군력을 마음대로 강화할수 없다는 진리를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시였기에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자립적병기공업창설에 선차적힘을 돌리시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930년대 주체적병기공업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시기로부터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주제42(1953)년 7월까지의 자료가 사적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사적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항일의 나날 한자루의 총을 위해 아까운 전우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가슴쓰라린 이야기며 한때 간도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지어보려다 아무런 소식도 없게 되자 실망을 금치 못해하던 사실,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작탄을 만들고 무기를 수리하던 일이며 해방후 병기공장이 창설되어 기관단총과 박격포 등 여러가지 무기들을 생산하고 첫 군함 《로동자》호가 지 만들어낸 사실 등 듣는 이야기마다 감동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이 창설된 그해 9월 공장일군들을 부르시여 우리가 군대를 창건하자면 군대를 무장시킬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무어는 값이 매우 비싸고 또 다른 나라에서 주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빚을 지고서라도 사울수 있지만 안주겠다고 할 때에는 손을 털고 빈손으로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기관단총을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그것은 당시 기계제작공업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자동식적격무기였다. 일정한 병기공업의 력사가 있어야 했고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품들을 가공할수 있는 전문설비가 있어야 했다. 더우기 갓 창설된 병기공장은 설비와 공구들도 불비하였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총이 백화점에 내놓을 장난

감인줄 아가고 하면서 《시기상조》라고 시비도 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먼저 부속품도면부터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공장들에서 나누어 가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시었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믿음에 고무되어 공장에서는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제품생산에 성공하였다.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으며 첨단무장장비들이 개발완성되어 하늘과 땅, 바다를 더욱 철벽으로 지킬수 있게 되었다.

나라의 군력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에는 주제조선의 첫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이 온 행성을 뒤흔들어놓고 공화국을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였다.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 성공, 이것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하는 일대 장거이며 민족사적경사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이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애국의 병진로선이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가장 정당하고 위대한 애국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보다 힘차게 추동해가게 될것이다.



병진로선이 안아온 승리

공화국은 지금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병진로선을 전략적으로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일관성있게 내밀고있다.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져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과학자거리, 평양과 원산의 육아원과 애육원, 육류자동병원과 류경치과병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등 많은 건설대상들이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

남들같으면 10년 또는 그이상이 걸려야 하는 방대한 건설대상들이 불과 1년지여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회천발전소를 비롯한 크고작은 발전소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10월8일공장, 원산구두공장 등 새 세기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서거나 현대화되어 사람들의 호평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생산해내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예 힘은 넣은 결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일떠서고 하늘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자체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게 되었다. 어장과 포구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져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쳐나고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도 놀라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병진로선의 참뜻을 일깨워주시며

주제51(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해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사업을 개편하고 국가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경제국방 두 분야에 대등한 힘을 돌려 국가방위의 완벽을 기하는 한편 그와 병행하여 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기로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 병진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국방건설만 하고 경제건설을 하지 않는것은 마치 아이들이 바지를 벗고 장도칼을 차는 격이다. 장도칼이라는것은 아이들의 위풍을 돋구기 위하여 채우는 칼이다. 그런만큼 장도칼을 바지저고리를 입고 차야 모

양도 있고 위풍도 있지 바지를 벗고 장도칼을 찬 아이는 불모양이 없다.

국방건설을 하지 않고 경제건설만 하는것은 마치 아이에게

핵보검을 더욱 억세계 틀어쥐고

정치, 경제, 군사적힘을 총동원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러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던 세해전 3월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요구라는데 대해 밝히시었다. 그러시면서 병진로선은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공화국의 전략적으로선이라는데 대해 말씀하시었다.

고운옷을 해입혔는데 장도칼을 채우지 않은것이냐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병진로선의 참뜻을 통속적으로 알려주시는 심오한 가르치심이었다.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전쟁억제력을 포기하여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동중지역 나라들의 교훈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그이께서는 지금 이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살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계 틀어쥐고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독절음

본사기자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

새해를 맞으며 평양의 대동강 축선에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이 준공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특색있게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의 웅장 화려한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펜촉모양의 탑앞에서 우리와 만난 한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이 누구나 찾아와 현대과학기술을 마음껏

배울수 있는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회한하게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안팎을 돌아보았다. 돌아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전당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이 안겨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과학기술발전에 달려있다

고,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보급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축선에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울것을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다.

지난해 2월에는 찬바람이 불어치는 건설장을 또 다시 찾으시어 과학기술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집대성되고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이 있어서 흠잡을데 없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

시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 주시었다.

올해 1월 1일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에 몸소 나오신여 준공레드도 끊어주시어 그이께서는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 구현된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라고,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강성국가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주제건축예술의 표본, 국보적인 건축물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의 1층홀에 들어서니 독특한 형식의 원형관통홀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원형으로 된 계단의 한 가운데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인공위성 운반 로케트모형을 설치하여 하늘에 닿은 국력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을 무궁무진한 과학기술 잠재력이 궁지높이 안겨왔다.

사람들이 인터넷망과 국내컴퓨터망, 내부망과 접속하여 최신과학기술 자료들을 봉사받을수 있도록 설치된 컴퓨터들이 《바다》를 이루고있는 광경도 장관이었다.

이어 우리는 2층과 3층, 4층에 꾸러진 첨단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과학탐구관, 동화상영관, 학술토론회실, 원격강의실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액정TV열람관에서 사람들이 과학기술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토론에 여념이 없는가 하면 5.1음향체계를 결합한 3D동화상열람봉사를 받기도 하고 컴퓨터로 도서목록을 검색하는 사람들

로 붐비고있었다.

인상깊은것은 첨단과학기술관에서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술, 핵기술, 해양기술, 우주기술분야에서 이룩한 세계적인 과학기술성과들과 기초원리, 발전추세자료들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응용과학기술관들과 가상과학실험실들에서는 사람들이 모의실험을 통해 과학의 법칙과 원리들을 체득하기도 하고 의문되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받기도 하면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평양 326전선공장의 김순철기사는 《순접촉식컴퓨터와 투영기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설비와 기제들이 그 촘촘하게 갖추어져있는 과학기술전당에서 알고싶었던 첨단과학기술자료들을 쉽게 찾아볼수 있어 정말

좋다. 과학적환상이 내려치고 공상현대화에서 걸렸던 기술적문제들이 풀려나가는것같다.》고 말하였다.

우리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곳 과학기술전당은 공화국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과 세계선진 과학기술자료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있는 종합적인 전자도서관,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 정보교류의 거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으로 과학기술전당이 야말로 과학기술발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한눈에 볼수 있는 탐구의 거점, 배움의 거점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우리는 탐구의 나래,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 열정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과학기술전당의 여기저기에서 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고영속



한겨울에도 과학탐구열기로 후끈



대한을 전후하여 한겨울의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찬바람을 몰아왔지만 축선에 새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에는 열풍이 세차게 불고있다.

과학탐구의 열풍, 배움의 열풍이다.

지난 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한 준공식을 한 과학기술전당으로는 매일같이 수많은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찾아오고있다.

더우기 요즘은 각 대학들과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소학교들이 방학을 보내고있는 때라 청소년학생들로 여느때없이 붐비는 과학기술전당이다.

과학기술전당에는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사명에 맞게 지난 시기의 출판된 과학기술도서들은 물론 국내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자도서관화되어있다.

이곳을 찾는 독자들은 각이한 분야의 그 어떤 자료도 찾아볼수 있는 각종 열람실들과 기초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지적체험실, 가상과학실험실 등 부분별실내과학기술전시장들, 과학기술보급실들에서 과학기술의 원리와 방법들을 깊이 체득하고있다.

특히 3층에 꾸러진 가상과학실험실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가상과학실험실은 건반과 마우스에 의한 기초적 컴퓨터모의실험으로부터 립체안경이나 자료장갑을 비롯한 전용가상실험기구들을 리용하는 여러가지 모의실험들을 통하여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공학부문의 기본법칙들과 원리, 현실에서의 응용방법, 설계계산 방법과 같은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할수 있게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일반기초리론모의실험, 전문가모의실험 등 모의실험들을 할수 있다.

공처럼 튀는 닭알에 대한 실험을 하고있는 평양 동성초급중학교 학생 김예현, 성냥없이 불붙이 기실험을 하고있는 평양 간성소학교 학생 박지은, CNC기계의 기본부분품들인 주축과 주축함, 후라이스반에 대한 설계모의를 하고있는 평양기계종합대학 학생 현철범, 각두기와 메기랑을 비롯한 민족료리뿐아니라 동양로리, 서양로리의 가공과정에 대하여 모의실험을 해보는 해맞이식당 로리사 고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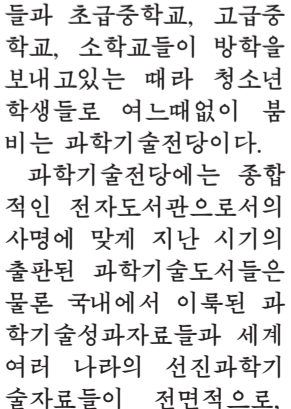
소학교학생으로부터 대학생,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기들의 모의 실험세계에 빠져있다.

얼마나 흥미있는 과학의 세계인가.

이밖에도 원격강의실, 과학영화보급실, 공동연구와 교류를 진행하는 국내외기술정보교류실과 과학기술성과발표 및 토론회장들에서도 과학탐구의 열정을 불태워가고있는 청년학생들과 과학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참으로 과학탐구의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이곳에서 꿈과 환상의 세계를 한껏 나래쳐 최첨단과학의 명마루를 하루빨리 점령해갈 불타는 열의로 한겨울의 추위에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과학기술전당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꿈과 환상의 활무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소년들로 붐비는 과학기술전당의 어린이꿈관은 마치 동화세계를 방불케 했다. 누구나 마음대로 읽고 만져보고 듣고 실험해보는 나 어린 학생들의 모습은 볼수록 대견했다.

우리의 눈에 어린이꿈관에 대하여 친절하게 알려주는 전자소개관이 떠웠다. 어린이꿈관에 대하여 알기쉽게 리해할수 있게 만든 동영상판집물이 화면속에 흘러갔다.

우리는 주위세계를 잊은채 꿈과 환상의 세계에 묻혀있는 학생소년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들은 그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과 환상속에 그려보던것들을 자기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만들어보기도 하고있었다.

그들가운데는 컴퓨터에 의한 가상합성기재와 플라즈마기체가 들어찬 투명구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도체의 류전현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학생들이 령명해 불타는 열의로 한겨울의 추위에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과학기술전당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적외선컴퓨터건반을 보면서 배운 내용을 다져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린이들이 떠날줄 모르는 《자연탐험》구역, 이곳에는 하늘과 땅, 바다속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동식물들의 표본이 있는 곳이다. 금시라도 사나운 이발을 드러내고 달려들것같은 승냥이 박제품 그리고 나무가지에 앉은 조롱이와 겨울잠을 자는 고슴도치, 숲속을 거니는 메뚜기 등 동물표본들은 학생소년들에게 다양한 동식물자원들에 대한 직관적이며 생동한 표상을 심어주고 있었다.

잠수함놀이기구에 올라 《바다속여행》을 즐기는 모의해저유람도 학생들에게 생동한 체험을 더해주고있는가 하면 지능개발교실에서 어린이들이 갖가지 모양의 조립식놀이감을 가지고 놀고있는 모습도 재미있었다.

인형놀이장에서는 어린 처녀애들이 치마저고리를 제순으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색실로 글도 수놓고있었다.

철없는 아이들의 놀음이지만 나름대로 신동한 창안품들을 보면서 장차 저 아이들속에서 재능 있는 건축가도, 미술가도, 의상전문가도 나올것이라는 기대가 갈마들었다.

그런가하면 《지혜의 샘》구역은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어 어린 학생들이 척척 풀어내는 그야말로 지혜가 샘처럼 솟아나는 흥미있는 곳이었다. 화면에 현시되는 수많은 대상들 가운데서 알맞는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 조건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서로 싱갱이질을 하는 모습과 그속에서 울리는 노래의 정확한 음의 묘여나가는 처녀애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돌아볼수록 과학기술전당이야말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과학기술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가는 더없이 훌륭한 꿈과 환상의 활무대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본사기자 강류성



그에게는 어머니 조국이 있었다



해방전 우리 나라 화가들중에서 가장 재능 있는 화가를 꼽는다면 아마 변월룡(1916-1990년)일 것이다. 그는 뛰어난 미술재능으로 유럽사람들을 놀래운 화가였다. 망국노의 불운한 운명을 타고난 그는 로씨야에서 살면서 높은 회화실력으로 로씨야

와 유럽의 회화계를 뒤흔들어놓았다. 그의 작품들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세련되어 있었다. 미학적리상의 높이에서뿐만 아니라 탄탄한 소묘, 뚜렷한 개성, 매력 있는 필치와 색채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가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는 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이역에 살면서도 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한생 조국을 마음속으로 그리었다. 그의 곡절 많은 애국의 삶은 사람들에게 조국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절절히 되새기게 해준다.

그 결심하였다. 24살이 되던 해, 1940년에 그는 스웨르들롭스크미술전문학교를 가장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후 높은 회화실력으로 레닌그라드(오늘의 산크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레벤미술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나날에도 변월룡은 조선사람의 비상한 두뇌와 재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레벤미술대학은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빠냐의 교수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있었던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하나였다.

변월룡은 대학에 들어가 첫 수업을 할 때부터 소묘실력에서 로씨야학생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대학기숙사에서 석판화, 동판화를 쉬임없이 창작하였고 재능이 널리 알려져 3학년시기에는 대학출판국에서까지 주문을 받게 되었다. 1945년 변월룡은 대학졸업작품으로 유화 《조선의 어부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조선사람의 피는 결코 숨길수 없었다. 29살의 작고 조용한 청년 변월룡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조선에 와본 일이 없으나 조국을 그리며 조선의 어부를 창작하였던 것이다. 작품은 제일 우수한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1951년에 자기가 흠모하는 조선민족의 영웅이신 수령님을 그리며 유화 《김일성장군초상》을 훌륭히 형상하여 로씨야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951년 변월룡은 전련맹 미술전람회에 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해에 그는 대학학술협회의 결정으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고 레벤미술대학의 첫 조선인교수로 되었다. 그는 실력으로 얻어진 교육적전위를 가진 교수였으나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멀리 조국에 대한 미지의 회망과 꿈이 떠날줄 몰랐다.

한 요람이 조국이다. 망국민의 설움속에 모대기며 찬바람부는 이역에서 피라게 인생역정을 헤쳐온 변월룡에게는 따사로운 어머니조국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파어린 항일대전으로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을 세우신것은 해외에서 사는 조선동포들에게도 운명의 밝은 빛으로 되었다. 미국에 의해 조선에서 전쟁의 불길기 2년째 타번지던 시기에 변월룡에게는 너무나도 상상밖의 영광이 차례지게 되었다. 절 세 위 인 이 신 김일성주석께서 이전 소련을 방문하시어 레닌그라드에 있는 국립미술박물관을 참관하실 때 통역을 해드리게 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그는 인자하신 눈길과 비범하고 소탈하신 풍모에 대번에 매혹을 금치 못하였다. 이분이 만주광야를 주름잡으며 일본침략자를 전멸시키신 령장이시구나, 나의 조국을 해방시켜주시어 만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주신 민족의 구세주이시라는 감격이 그의 가슴속에 물결쳤다. 위대한 주석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와 존경은 그의 인생사에 전환을 가져왔다. 변월룡은 최대의 존경심을 담아 그에게 박물관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조선말을 잘한다고 치하시며 조선사람이라고 정중히 대답을 올릴 때 변월룡은 뜨거울것이라 가슴속에서 치밀어올라 눈물이 앞을 가리우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에 한번 오게 해달라고 말씀올리는 그에게 조선은 지금 불바다가 되었다고, 조선에 꼭 오라고, 자신께서 대사관에 일러 주겠다고 하시었다. 변월룡은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과 자애에 넘치는 말씀에 몸둘바를 몰랐다. 그날의 커다란 영광은 이국에서 살고있는 그의 고향과 외로움을 가셔주는 신기한 힘으로 되었다.

나라없는 설움을 삼키며



《3. 1 인민봉기》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것은 조국이다. 조국이 없다면 매 개인의 삶과 운명은 길가의 조약돌처럼 빛을 잃고 나뭇잎처럼 될 것이다. 100여년전 나라를 빼앗긴 조선민족의 운명이 바로 그러하였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약소민족의 설움을 삼키며 살길찾아 암흑강, 두만강을 건널 때 변월룡의 가족도 정든 고향 함경도 무산을 떠나 낮은 로씨야의 원동에 삶의 보 집을 풀지 않으면 안되었다. 변월룡은 1916년 9월 29일 연해주 류랑민촌의 빈곤한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굶주리는 식구들을 먹여살리려고 사냥을 나갔다가 종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하여 변월룡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채 쓸쓸하고 외롭게 자라났다. 할아버지의 관심속에 한문과 서예를 배운 변월룡은 10살에 조선인학교를 다니다가 10년제학교에 전학하였다. 그는 학교시절에 그림과 관련된 일에는 선망으로 나섰었다. 1937년 류랑민촌의 인정 깊은 조선사람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변월룡의 남다른 미술재능을 보고 쾨돈을 모아주면서 도회지 미술학교에 가라고 등을 떠밀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씨비리서쪽에 있는 스웨르들롭스크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변강 연해주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이 도시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받은 도서삽화들을 그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변월룡은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숙소에서 학업과 생활전투를 병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국은 단지 나서자란 산천과 고향이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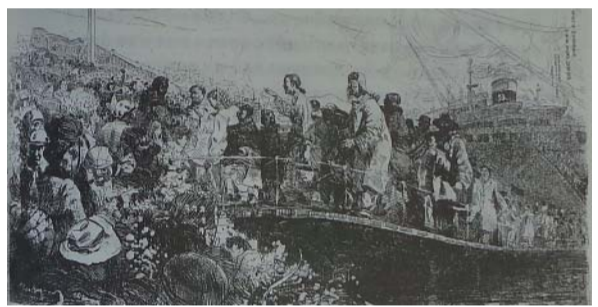
로프스크의 거리를 바라보며 우랄산맥을 넘어 아시아의 동북쪽 연해주의 류랑촌을 생각하느라 나라 잃은 조선사람들의 불행한 처지가 머리에 떠오르고 이 운명에 순종할수 밖에 없는 자신이 그지없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자기를 지켜줄 조국이 없는 불행을 그는 점차 알게 되었다. 변월룡은 철없이 보낸 성장의 나날에 무심히 들어왔던 류랑촌마을의 선각자들에게서 들은 조선, 고국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가를 점차 깨닫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생각이 무관심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선, 이국에서 당하는 설움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자기 나름의 세계에서 조선사람으로서 본태를 보이는 출중한 실력가가 될것을 으르리지

조국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삶의 향기이고 젓 줄기이다. 멀리에 있으면 더욱 그리워지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의 락도, 줄 거움도 없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조국이다. 변월룡은 이전 소련에 돌아간 후에도 숨을 거두는 마지막날까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민족적감정을 창작과 생활에서 표현하였다. 변월룡은 전련맹미술전람회가 열릴 때마다 조선의 현실을 그린 작품들을 내놓았다. 1958년 레닌그라드미술 전시회때에는 유화 《조선 풍경》, 《북조선어부》, 《모란봉 울밑대》, 《소나무》, 《조선의 농민》 등 여러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1960년에는 유화 《평양의 아침》, 《두그루의 소나무》와 동판화 《조국의 품에 안긴 재일동포들》을 창작하였다. 1961년에는 동판화 《자유와 통일을 위하여 전진》, 《6. 25전쟁이 남긴 지근》, 《분노한 인민》, 《북으로!》 등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을 창작 발표하였다. 한생을 해외에서 살면서 이국의 풍토와 기후,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있었지만 그는 창작에서 언제나 조선에 대한 내용을 화면에 담았다. 동판화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에는 화면우측에 조선글로 고국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쓰고있다. 그는 늘 조국을 생각했고 조국에 가고싶었다. 몸은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으로 달리고있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 이것은 그의 생활을 지배하는 감정이었고 조선에서 보낸 교육과 습자의 나날은 미술을 사실주의의 세계적지위에 올려세우는 불타는 열정의 날들이었다. 변월룡은 생을 마치는 마지막날에도 조선에 대한 애라는 그리움을 안고 금강산 소나무와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조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려고 이 곳에 있는 조선사람들을 찾아다니던 때가 많았다고 한다. 절세위인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속에 어머니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미술가의 참된 삶을 빛내인 변월룡은 오늘도 겨레의 추억속에 살아 있다.



《모내기》(1955년)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1960년)



《남조선의 자유와 통일을 위하여》(1961년)

최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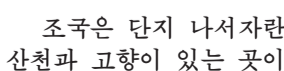
조국의 따사로운 손길



① 그림을 그리는 변월룡 (1954년)



② 《무용가 최승희》 (1954년)



③ 《작가 리기영》 (1953년)



아니다. 품어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삶의 따듯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은 리행되어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한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새해 우리 겨레앞에 나선 투쟁과업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지금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하루빨리 리행되어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북과 남이 분렬사상 처음으로 7.4공동성명을 통해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발표함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

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겨레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루어진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에 관통되어있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에는 온 겨레가 믿을 수 있는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지향시키며 굳게 손잡

고 단결합체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불신과 대결이 흐르던 이 땅에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사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한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사실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사이에 진행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 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6.15시대를 통하여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할 때에만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진리로 새겨안았다.

그러나 지금 북남관계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부정하고 거세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한 후 지난 8년동안 북과 남사이에는 군사적충돌의 위기가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이 바람앞에 선 초불마냥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처럼 위험천만한 사태를 몰아온 장본인인 남조선당국은 잠만 있으면 《평화》니, 《통일》이니 하는 말들을 끝잘 외우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을 대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

실히 리행해나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변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체제대결은 시대착오적인 망동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자면 자기의 사상과 체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체제대결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북남사이에 불신의 장벽을 높이 쌓는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온 서로 다른 사상과 체도가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기의 사상과 체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체도의 차이가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되지 않는다. 북남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차이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이 훨씬 더 크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जो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체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련방제방식에 기초한 민족공동의 리행을 실현할수 있다.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지난해에 공화국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그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동족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반공화국모략과 도발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뚜렷한 표현이다. 체제대결, 《제도통일》은 동족의 사상과 체도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과 병적인 거부 의식, 압살정책의 발로로서 북남간에 불신과 갈등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빚어낼수 있는 온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밖에 나가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체제대결을 노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는가 하면 제 집안에서는 《통일준비위원

회》를 내온다, 《북인권법》을 제정한다 하고 분주량을 피우면서 《제도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소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 그런가하면 시대착오적인 력사교과서 《국정화》늘음으로 공화국의 존엄높은 력사와 눈부신 현실을 헐뜯으면서 사회전반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 불장난소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도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고 《제도통일》의 범죄적자망을 이루어보려는 흉심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실제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들의 《대북정책》이 그 누구에 대한 압력강화와 그를 통한 《변화유도》를 위한것이라고 내놓고 떠들어대고있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체제대결의 중착점은 곧 재난적인 전쟁이다. 지난해 8월 교전직전까지 치달았던 위기일발의 사태도 남조선당국의 체제대결야망과 그에 따른 군사적도발이 북남관계에 얼마나 엄청난 해독적후과를 미치고 있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체제대결책동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체도를 자기의 피와 살처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자기의 존엄과 체제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된 공화국의 체도는 자주성과 존엄,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본주의체도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하지만 공화국은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을 응수 그만두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대결정책을 버리고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려는 행위를 당장 견어치워야 할것이다.

북남관계를 해치는 외세와의 공조

세기와 년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이 장장 반세기가 넘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분열이라는 가슴아픈 비극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분열의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악랄한 훼방꾼이다. 이런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대결정책을 버리고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려는 행위를 당장 견어치워야 할것이다.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는것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망치는 길

이다. 조선반도는 지정학적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얽혀있는 예민한 지역에 자리잡고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갖 해방된 우리 나라가 민족분열이라는 재난을 강요당하게 된것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패권적지위를 차지하려는 외세의 리해관계때문이었다. 지금도 외세는 조선반도의 현 대결국면을 통해 최대한 리득을 보려고하고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운명을 짓밟으며 침략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는 외세를 한사코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끌어들이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동족을 외면하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공화국의 적극적이며 정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가 진전되지 못하는 주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남조선당국의 외세의존사상이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수치스러운 외세의존책동은 그 무슨 《통일외교》라는것을 통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느니, 《주반통일적인 외세에게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는것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망치는 길

가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동족을 해치려는 외세를 중시하고 그에 의존하는 그자체가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표시이다. 이런 반민족적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서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절대로 개선해나갈수 없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외세의존, 외세의의 공조에서 벗어나야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열린다.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동족과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지만 반대로 외세를 중시하고 그와 공조하면서 동족과 대결하면 북남관계는 긴장과 파국을 면할수 없다. 이것은 력사적 사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늘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으로 하여 차례질것은 수치와 굴종, 북남관계파국과 전쟁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반민족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에 수치를 느끼고 그것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조선이 핵을 보유한것은 전략적필요에 따른것이다

미국 AP통신이 보도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에게 표창사업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라의 핵병기창을 지켰던 핵전투원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핵병기창, 실로 의의깊은 말이다. 미국의 핵전황에 대비해 강력한 핵억제력을 생산해내는 공화국의 핵병기창, 이는 인류의 지혜가 열어놓은 핵을 저들의 침략야

망의 수단으로 만들어 자주적국가들을 업수이 여기던 미국의 핵무기가 더는 그들의 독점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

정의의 그 핵병기창에 려 행성을 진감시켰다.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이며 막강한 군사강국인 공화국을 핵보유국의 전렬에 올라서게 한 든든한 밑천이며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할수 있게 한 민족의 커다란 재부가 바로 공화국의 핵병기창인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과 침략위협이 가속되던 한 공화국의 자위의 핵병기창에서는 정의의 억제력들이 계속 팡팡 울려주는 소형화된 수소탄의 장쾌한 피성이 울

리기도 하고 제재도 하였던것이지만 그것이 은을 내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민음직한 핵무력을 개발하는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평양에 있어서 미국을 억제하는데 필요되는 고도로 정교한 대규모상용무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성공가능성도 훨씬 높다. 북조선이 주장하는 자위는 특별한것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모든 핵보유국들이 다 하는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첫 핵폭탄을 투하한 후 미국은 이전 소련의 위협을 구실로 대규모핵무기고를

건설하였다. 이전 소련도 똑같은 주장을 하였다. 미국과 이전 소련을 다 같이 우려한 중국도 자체의 핵을 보유하고있다. 인디아는 파키스탄때문에, 파키스탄은 인디아때문에 핵폭탄을 가졌다. 목인된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위협을 등대고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이들중 핵을 포기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한 론평에서 《이라크의 짜담 후세인정권과 리비아의 가다피정권은 제도전복을

피하는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핵개발도대를 말끔히 헐리우고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결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은 북조선의 정권교체에 몰두하고있으며 1950년-1953년 조선전쟁이 정전협정체결로 종결된것으로 하여 북조선과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다. 이런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다른 핵보유국들과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본사기자

자위의 핵병기창



◎ 세계의 명승 백두산천지의 물 ◎

백두산천지는 그 웅대함과 장쾌함, 우아한 절경뿐 아니라 물 또한 맑고 깨끗하여 세상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민족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승이다. 먼 옛날부터 백두산천지를 큰 뜻이라는 뜻에서 《대지》, 《대택》이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라고 하여 《천상수》라고도 불렀으며 백두화산의 분화구 등을 특징짓는 요소로 보고 《달문지》라고도 불려오다가 천지로 부르게 되었다. 백두산천지는 최대깊이가 384m, 둘레의 길이는 14.4km이며 19억 5천 5백만㎡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을 가지고있다. 천지물은 매우 맑고 깨끗하다. 더우기 천지의 물은 광물질을 비롯하여 인간의 건강에 필요한 여러가지 성분들도 많이 포함하고있다. 천지물은 여러가지

원소들이 포함되어있는 약수와 같은 물이다. 천지물의 광물질총량은 계절마다 그리고 구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나지만 평균 309.95ppm이고 이온총량은 243.25ppm인데 그 가운데서 양이온은 72.93ppm이고 음이온은 170.32ppm이다. 이처럼 천지물은 광물질량이나 이온량이 다른 보통물에 비하여 많은것이 특징이다. 천지물은 또한 인체에 필요한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을 다 포함하고있다. 반면에 해로운 여러가지 질소화합물들이 전혀 없는 물이다. 천지물은 매우 연한 연수이다. 일반적으로 화구호의 물은 pH가 3.0정도인데 천지물은 pH가 7.6~7.8로서 약알카리성이다. 천지물이 깨끗하고 정갈한것은 그 원천과 주위 환경에 많이 관계된다. 천지물의 원천은 특수한

형태의 땅속물과 대기강수 그리고 천지바닥의 땅속물과 온천물이다. 천지에 보충되는 물량 가운데서 84%는 분화구에 내리는 대기강수이고 16%는 바닥땅속물과 온천물이다. 분화구에 떨어진 대기강수중에서 약 43%는 천지호반에 떨어져서 부석층과 운석층에 침투되었다가 영구동결층으로 형성된 호반의 얼음층표면을 거쳐 천지로 흘러들어간다. 이 과정에 여러가지 광물질들이 용해되고 이온화되어 천지에 모여든다. 그러므로 이 물은 순수한 비율이 아니다. 총적으로 볼 때 천지물의 기본원천은 약 60%가 땅속물이고 약 40%는 천지의 물면에 직접 떨어지는 순수한 강수이다. 천지에는 백두산의 겨울기간인 약 8개월동안 분화구안의 계곡과 골짜기들에 수십m깊이로 쌓

이고 쌓인 눈들과 굳게 다져지고 다져진 눈이 얼음으로 되었다가 5월 중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하여 흘러든다. 또한 천지의 얼음우에 쌓여있던 눈들도 5월 하순부터 녹아내려 천지물과 합체하게 된다. 천지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의 산정에 있으며 주위에는 높은 련봉들과 절벽, 벼랑들로 둘러싸여있고 백두산은 사방으로 수백리나 되는 울창한 수림속에 거연히 솟아있다. 따라서 천지물은 물리화학적특성에서나 위생학적으로나 사람들이 마실수 있는 건강에 매우 좋은 물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백두산에 올라 천지의 맑고 깨끗한 물도 마시고 천지의 신비로운 절경도 부감하면서 애국의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멋이 제일》

얼마전 우리가 창천거리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선경종합식당 결혼식식당을 찾았을 때였다. 홀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식당의 서욱화책임자는 결혼식식당 문을 연 때로부터 수백여차에 걸쳐 결혼식을 위한 봉사를 진행하였는데 오늘도 결혼식이 진행되고있다고 알려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결혼식이 한창인 식당안에 들어서니 전통적인 조선치마저고리를 화려하게 펼쳐입은 여성들의 우아한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운 꽃발을 통채로 옮겨놓은듯 한 결혼상에 마주앉은 신부는 진분홍색저고리에 연분홍색치마를 곱게 차려입었는데 그 치마저고리웃차림이 바지저고리를 입은 신랑의 옷차림과 한껏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우아하면서도 화려하게 안겨왔다. 단정한 머리단장에 옷차림까지 민족적인 전통

을 살려 고상하게 하고 한 쌍의 원앙새마냥 다정히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돋보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접대원들도 모두 노란색저고리에 분홍색치마를 받쳐 입고 상냥한 얼굴로 친절한 봉사를 진행하고있었다. 허광수접대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결혼식식당을 찾는 많은 손님들도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봉사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기분이 막 상쾌해진다고 말합니다. 손님들에게 음식도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해주시니 더없이 만족합니다.》 그의 말대로 식탁마다에 평양랭면, 통배추김치, 대구회, 폐지대加里보쌈, 청포묵채를 비롯하여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전통적인 민족음식들이 가득차있었다. 민족의 향취가 넘쳐흐르는 분위기속에 새 가정의 행복을 축복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넘실거렸다.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가과학원 경공업

과학연구원 방직연구소 연구사인 신랑 김철수동무와 평양어린이식품공장에서 일하는 리영희동무의 결혼을 축하하여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서 선창을 했다. 해바라기를 형상한 수정무리등이 황홀한 빛을 뿌리는 결혼식장에 《축복하노라》와 《우리 집사람》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소리가 터졌다. 축하의 노래는 계속되었다. 《옹헤야》, 《신고산타령》, 《도장노래》... 손님들과 접대원들이 서로 어울려 민족적충취를 돋구는 노래들을 부르고 어깨를 들먹이며 덩실 덩실 춤을 추었다. 축하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신랑, 신부도 노래를 불렀다. 옷차림도 민족옷차림, 음식도 민족음식, 노래도 조선민요, 춤가락도 조선춤가락이었다.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누군가의 말이 들려왔다. 《뽀뽀뽀해도 우리 식, 우리 멋이 제일이야.》 본사기자 홍범식

경길을 마주 향해 두 선비가 올라오고있었다. 왼쪽길로 올라오는 선비는 깃을 썼는데 입을 하나 벌리고 오른 쪽길로 올라오는 선비는 앞가슴에 떡보

를 안고있었다. 그들은 산마루에서 서로 만나 같이 쉬고 가게 되었다. 서로 마주앉아 통성을 한 그들은 배가 출출하여 점심을 먹으려고 하

었다. 먼저 앞가슴에 떡보따리를 안은 선비가 깃을 쓴 선비에게 말했다. 《무슨 소릴 하나? 나는 저 산밑에서 깃끈이 풀어진걸 매기 싫어 깃이 벗어질가봐 입을 벌리고 있다네.》

유모아

두 선비
선비에게 말했다. 《여보게, 점심에 먹을 떡은 내 보따리속에 있네. 우리 마누라가 가면서 먹으라고 앞가슴에 달아주었네. 그런데 꺼내기가 싫어서 먹을수가 없

다. 먼저 앞가슴에 떡보따리를 안은 선비가 깃을 쓴 선비에게 말했다. 《무슨 소릴 하나? 나는 저 산밑에서 깃끈이 풀어진걸 매기 싫어 깃이 벗어질가봐 입을 벌리고 있다네.》

피난민사태에서 인류가 찾는 교훈



지구가 세계적인 난민위기로 몰살을 앞보고있다. 얼마전 유엔은 세계적으로 피난민수가 6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웅대한 나라의 인구수보다 많은 피난민수는 2010년전에

비해 1630만명 더 증가한것으로서 류례없는 일이다. 오늘 가장 엄중한 인권재난으로 불려우고있는 피난민사태에서 인류는 심각한 교훈을 찾고있다.

생결단의 피난의 길에 오르고있지만 그들에게 차레지는것은 그 어떤 평온이나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공포뿐이다. 《인권옹호자》라고 자처하는 일부 유럽나라들의 의도적이고 로골적인 인권유린행위로 말미암아 피난민들은 지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불행에 강요당하고있다.

한심한 수용시설들에 피난민들을 집결시켜놓았다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유럽 일부의 정당들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미명하에 이주민배척을 주요강령으로 내세우고 자국민들의 인기를 올리고있다. 영국은 지난해 8월부터 런던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피난민들이 발을 붙일수 있는 곳에 대한 검열단속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난민들을 받아들일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리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있다. 유럽나라들의 고위관리들속에서 피난민들을 가리켜 《불법이주민》, 《도적들》이라는 망발들이 꺼리낌없이 튀어나오는 속에 도이쉴란드에서는 지난해에만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방화사건이 200건이상 발생하였고 오스트리아의 고속도로상에 버려진 랭동차안에서 70여구의 피난민시체가 발견되는것과 같은 비참상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있다. 문제는 오늘의 피난민들이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망국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 길을 찾아 정처없이 류랑의 길을 떠난던 19~20세기의 피난민들과 처지가 다르다는것이다.

지금 살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피난민들에게는 그래도 나라가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삶의 안식처로 되지 못하고있다. 전쟁의 불구름이 라래 쳐오르고 끊임없는 내전과 류혈참극이 벌어지는 살벌한 세상에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생명의 안전도 담보되지 않아 정 고장과 나라를 떠나 타국에로의 피난행렬에 섞인것이다.

무리이동을 하는 피난민들이 인류의 량심에 이렇게 묻고있다. 《누구때문에, 무엇때문에 우리가 이 교생이냐?》

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삶의 안식처로 되지 못하고있다. 전쟁의 불구름이 라래 쳐오르고 끊임없는 내전과 류혈참극이 벌어지는 살벌한 세상에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생명의 안전도 담보되지 않아 정 고장과 나라를 떠나 타국에로의 피난행렬에 섞인것이다.

금의 피난민사태가 잘 말해주고있다. 세계의 제일 앞장에서 《인권》을 떠들어온 미국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밥먹듯이 일삼아 지금의 피난민사태를 몰아온 주범이라는 사실은 인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세울것을 행성에 요구하고있다.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국권을 지키는것은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그러나 국권은 저절로 담보되고 지켜지지 않는다. 힘이 있어야 지켜진다. 오늘도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있다.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 그것은 자위의 군력이다. 현실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 자위적전쟁역력을 튼튼히 다져온 공화국의 조치가 얼마나 정당했기였는가 하는것을 천백번 확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어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전쟁행동도 맥을 추지 못하고 조 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 공화국의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있으며 이 땅에서는 피난민행렬과 같은 비극이 아니라 《세상에 부림없으라》라는 행복의 노래소리가 날로 더욱 커가고있다. 최근 정의의 보검인 수소탄의 보유로 공화국의 존엄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는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응철

국가재난이 부른 피난민사태

인류사회가 출현하여 사람들은 실로 헤아릴수 없는 많은 재난을 당하였다. 계급사회가 출현하기 전 사람들이 겪은 재난은 대부분 자연재해였다. 그러나 지구상에 계급사회가 출현한 후 더 많은 재부와 향락을 위해 다 른 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침략세력들의 정복전쟁은 자연재해와 함께 항상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키는 2대요소로 자리잡았다. 이것이 수천천년을 흘러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다. 지금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피난민사태에 직면하고있다. 레로와 보복의 악순환속에 수리와와 이라크에서는 1500만명, 예멘에서는 지난 1년간 100만명, 남부수단에서는 82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피난민들이 살길을 찾아 유럽으로 밀려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11월 중순까지 유럽

에 넘어간 피난민수는 거의 100만명에 달하고있다. 그중 60만명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판문인 그리스에 물러있고 도이쉴란드에는 지난해 9월에 평균 하루에 만도 1만 2000여명이 밀려들었다. 그런가하면 현재 60만 2000여명의 피난민들이 삶의 길을 찾아 로상에서 헤매고있다. 피난민으로 가는 길도 순란치 않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매매군들의 회유에 속아 쓰지 못할 낚은 밑선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있다. 지난해에만도 10월말까지 3320여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피난길에서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는 3살 난 어린이를 포함하여 남녀로소 가림이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난민들이 《인권옹호》와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유럽으로 사

실한 수용시설들에 피난민들을 집결시켜놓았다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유럽 일부의 정당들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미명하에 이주민배척을 주요강령으로 내세우고 자국민들의 인기를 올리고있다. 영국은 지난해 8월부터 런던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피난민들이 발을 붙일수 있는 곳에 대한 검열단속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난민들을 받아들일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리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있다. 유럽나라들의 고위관리들속에서 피난민들을 가리켜 《불법이주민》, 《도적들》이라는 망발들이 꺼리낌없이 튀어나오는 속에 도이쉴란드에서는 지난해에만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방화사건이 200건이상 발생하였고 오스트리아의 고속도로상에 버려진 랭동차안에서 70여구의 피난민시체가 발견되는것과 같은 비참상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있다. 문제는 오늘의 피난민들이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망국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 길을 찾아 정처없이 류랑의 길을 떠난던 19~20세기의 피난민들과 처지가 다르다는것이다. 지금 살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피난민들에게는 그래도 나라가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삶의 안식처로 되지 못하고있다. 전쟁의 불구름이 라래 쳐오르고 끊임없는 내전과 류혈참극이 벌어지는 살벌한 세상에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생명의 안전도 담보되지 않아 정 고장과 나라를 떠나 타국에로의 피난행렬에 섞인것이다.

무리이동을 하는 피난민들이 인류의 량심에 이렇게 묻고있다. 《누구때문에, 무엇때문에 우리가 이 교생이냐?》

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외세의 집요한 간섭과 파압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나라들에서 정권이 붕괴되고 사회안정이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대량살상무기제거》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은 평화롭던 이 지역나라들을 무질서와 혼란, 파괴와 략탈, 레로가 범람하는 략무장으로, 무사무시한 공포지대로 만들어놓았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과 침략에 의해 국가의 주권과 안정이 유린되고 파괴되면 그 국가에 몸을 담고사는 수많은 가정들에 불행이 차례지 기마련이다. 외부세력이 타민족에게 평화와 안정, 행 복한 삶을 줄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여러 서유럽나라들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왔다. 그러나 그 《인권》타령이 허위와 위선이 고 저들의 범죄적수법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였다는것이 21세기의 대재난으로 불리우는 지

침략세력들은 《분렬하여 통치하라》는 옛 문구 그대로 비렬한 수법으로 민족사이, 종족사이 리간책동을 교묘히 적용하여 종족 및 교파들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첨예화시켰다. 이속에서 각이한 극단적인 레로조직들이 생겨났고 레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조장되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편히 살수 없어 정든 고향을 뒤에 두고 눈물속에 이국으로 발길을 옮기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피난민사태는 국권이 자 인권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키고있다. 외세의 간섭과 침략에 의해 국가의 주권과 안정이 유린되고 파괴되면 그 국가에 몸을 담고사는 수많은 가정들에 불행이 차례지 기마련이다. 외부세력이 타민족에게 평화와 안정, 행 복한 삶을 줄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여러 서유럽나라들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왔다. 그러나 그 《인권》타령이 허위와 위선이 고 저들의 범죄적수법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였다는것이 21세기의 대재난으로 불리우는 지